

김정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전세계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김 정 은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주체101(2012)년 7월 26일

오늘 우리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섭니다.

나는 이미 여러 기회에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군들이 아직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깊이있게 리해하지 못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실속있게 해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강조하는것은 그것을 한갓 구호로 웨치거나 기발처럼 들고나가라는것이 아니라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몸소 보여주신 애국주의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

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이 소중히 자리잡고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울창한 수림과 번듯하게 정리된 드넓은 대지를 보시면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과 대대손손 누려갈 우리 인민의 행복한 앞날을 그려보시며 정을 담아 푸른 산, 푸른 들이라고 조용히 외우기도 하시였고 외국방문의 길에 계실 때에는 두고온 조국과 인민들이 그리워 내 나라, 내 민족이라고 감회깊이 불러보곤 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나무가 얼마 없는 산들을 보시면 못내 가슴아파하시면서 예로부터 우리 나라를 삼천리금수강산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조국의 산천을 로동당시대의 금수강산으로 훌륭히 꾸려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들이 부대주변의 산에 나무를 많이 심고 가꾼것을 보시면 더없이 기뻐하시며 병사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애국자부대라는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시였습니다. 그

리고 아담하게 꾸러지고 살구나무나 감나무들이
우거진 마을과 중대병영을 보시면 환하게 웃으시
며 살구나무동네, 감나무중대라고 민족의 향취를
담아 정답게 불러주곤 하시였습니다.

혁명에 길에 나서신 첫날부터 조선혁명을 책임
진 주인이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품으신 장군님께서
는 한평생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고 빛내이시였으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조
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헌신의 길을 이어가시었습
니다.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
의련합세력과의 가장 첨예한 대결이었으며 력사에
류례없는 매우 준엄한 투쟁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
는 조국앞에 가로놓인 엄혹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
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길, 험난한 선군
장정의 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간고한 애국헌신의 길을 걸어오시였는가 하
는것은 고난의 행군시기부터 생의 마지막시기까지
입고계시던 단벌솜옷이 그대로 말해주고있습니다.

어느해인가 장군님께서는 준엄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으시던 나날들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시다가 문득 자신께서 입고계시는 솜옷에 대하여 이야기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이 솜옷을 수령님을 잃고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부터 입었는데 준엄하였던 역사를 잊을수가 없어 아직까지 벗지 않고있다고, 이 솜옷은 선군혁명의 상징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습니다. 솜옷도 오래 입으면 얇아져 추위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얇아진 솜옷으로 스며드는 추위보다도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자신을 불태우시며 10여년나마 그 한벌의 솜옷을 입으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을 찾고 찾으시여 병사들을 한푼에 안아 일당백의 용사들로 키우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병사들을 찾아 넘고 오르신 철령과 오성산, 사나운 파도를 헤치며 찾으신 초도를 비롯한 조국수호의 전초선들은 선군장정의 길에 바치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증견자로 남아있을것입니다.

이번에 수령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진행된

열병식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한세기전에 총대가 약한탓으로 국권을 무참히 빼앗겼던 우리 조국이 천하무적의 군력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그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헤쳐오신 장군님의 선군장정을 돌이켜볼 때면 내 나라, 내 조국을 지켜주신 장군님의 애국주의가 얼마나 값높고 숭고한것이였는가 하는데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수호전을 이끄시는 엄혹한 속에서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습니다.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토지답게 정리되고 여러 지구에 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되였으며 농촌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중공업공장들과 경공업공장들이 새로 많이 건설되고 이미 있던 공장들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되었으며 이르는 곳마다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

우리 식의 새 세기 산업혁명을 안아온 CNC화를 놓고서도 장군님의 애국주의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2010년 1월 CNC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에게 CNC에 대하여 정열적으로 알려주면서 CNC화의 첫걸음을 떼도록 한 그 나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던 장군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시련의 시기에 식량이 모자라 고생하는 인민들을 두고 생각이 많으시였지만 부강할 조국의 래일을 위하여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시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 흘렸지만 나라에 있던 돈의 전부라고도 할수 있는 귀중한 자금을 CNC화에 돌리신것은 번쩍거리는 남의 기계를 사오는것보다 내 나라, 내 조국의 힘을

키워 우리 조국을 세계에 당당히 내세우려는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가 안아온 대용단이었고 최상의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한 힘을 키우는것보다 더 큰 애국은 없습니다. 힘이 강해야 조국도 지키고 후손만대의 행복도 담보할수 있는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노래 《돌과하라 최첨단을》을 들으실 때마다 CNC화실현을 위하여 헤쳐온 험난한 길들과 마음쓰던 일들이 되새겨져 눈물을 흘리시곤 하였는데 그 눈물은 진정 뜨거운 애국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에 펼쳐진 자랑스런 현실은 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불보다 뜨거운 사랑,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장군님의 희생적인 헌신은 자기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회주의제도의 정당성,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에서 출발한것입니다. 믿음을 떠나서 사랑이 있을수

없고 헌신이 있을수 없습니다. 확고한 믿음에 기초해서만 참답고 열렬한 사랑이 나올수 있으며 자기를 기꺼이 바치는 헌신도 나올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좋은 인민은 없다고 하시며 언제나 우리 인민을 굳게 믿으시였으며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보라고 하시며 승리할 조국의 앞날에 대하여 확신하고계시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을 믿듯이 우리 인민을 믿고 승리할 우리 조국의 앞날을 굳게 믿으시였기에 언제나 조국과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안으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였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은 또한 가장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 주신 조국의 운명, 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졌다는 숭고한 자각과 사명감을 가슴깊이 간직하시였습니다. 이 숭고한 사명감으로부터 장군님께서서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가다듬고 선군장정의 길에 나서시였으며 조국과 인민

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그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오신 애국주의는 그 본질적내용으로 보나 커다란 생활력으로 보나 오직 **김정일**동지의 존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애국주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 때 애국주의일반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실지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구현해오신 애국주의,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최고정화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가장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며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

김정일 애국주의는 숭고한 조국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에서 해빛처럼 밝고밝은 조국의 품은 아버지장군님의 품이라고 노래하시어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조국은 곧 수령이며 조국의 품은 수령의 품이라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주시었습니다. 조국은 단순히 태를 묻고 나서자란 고향산천이 아니라 인민들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며 그것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됩니다. 인민들의 참된 삶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은 오직 조국과 인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수령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꽃피날수 있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령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에 의해서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담보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자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애국심의 발현으로, 애국주의의 최고표

현으로 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숭고한 인민관에 그 바탕을 두고있습니다.

이민위천은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시였으며 인민이 있어 나라도 있고 조국도 있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신조였습니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짝차있었습니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였습니다. 나는 지금도 펼치면 바다가 되고 쌓으면 하늘에 닿을 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을 합치면 인민뿐이라고 노래한 《인민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면 한평생 인민을 마음속에 안고계신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와 눈물이 나오는것을 금할수 없습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후대관으로 하여 더욱 뜨겁고 절절하게 안겨옵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에 우리 장군님의 후대관이 집약되어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자기 대에는 비록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먼 후날에 가서 후대들이 그 덕을 볼수 있게 가장 훌륭하게, 완전무결하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었으며 늘 하시는 간곡한 당부였습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우리 인민에게 물려주신 고귀한 정신적유산이며 실천의 본보기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양식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는 우리 인민들을 대를 이어가며 참된 애국자로 키워주는 밝은 등대로, 투쟁과 생활의 라침판으로 될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

우시며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를 적극 따라배워야 하며 더하지도 덜지도 말고 실천활동에 그대로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누구나 다 **김정일**애국주의의 참뜻을 잘 알고 그것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원리적으로 깊이있고 폭넓게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구호를 웨치는 식으로 할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깊이있고 폭넓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장군님께서 지니신 조국관, 인민관, 후대 관에 대하여 똑똑히 알고 장군님처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며 조국과 인민의 미래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항일혁명선렬들처럼 오늘은 어렵더라도 인민의 념원이 활짝 꽃피날 래일을 위하여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교양사업을 실천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 애국주의교양에서 나타나고있는 기본결함이 교양사업을 실천활동과 동떨어지게 하는것입니다. 실천과 동떨어진 교양은 의의가 없습니다.

애국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이고 투신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우국은 애국이 아니며 말로 하는 애국은 필요없다고 하시면서 진실로 애국을 하려면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애국의 마음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실천활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참된 애국의 한길을 걷는 사람, 조국과 인민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제때에 성실히 수행하는 사람이 진짜애국자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교양사업을 현실에 발을 붙이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애국주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애국은 자기 집 뜰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애국심은 자기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 자기 고향마을과 일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싹트게 되며 그것이 나아가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기의 부모처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고향마을과 일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조국과 인민을 사랑할수 없으며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부모처자를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마을과 자기 일터를 남부럽지 않게 잘 꾸리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성실한 땀을 바치고 자기 한몸을 다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잘 하여야 하겠습니까.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한다는것은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장군님의 구상

과 념원을 철저히 실현하며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모든 사업을 장군님식대로 해나간다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고 실천해오시던 사업들을 충직하게 계승하고 완성하여 장군님의 리상과 념원이 이 땅우에 현실로 펼쳐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보위에 최대의 애국이 있습니다. 조국이 있어 당도 정권도 있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도 인민의 행복한 생활도 있는것입니다. 조국보위에 바쳐진 삶이 가장 값높은 애국적인 삶입니다. 조국보위 전초선에 선 인민군장병들은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틀어잡고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키며 후방의 인민들은 뜨거운 원군으로 선군의 내 조국을 받들어나가야 합니다. 전체 인민이 군사를 중시하고 군사를 성실히 배우며 일단 적들이 달려들 때에는 단호히 맞받아나가 조국보위성전에 애국충정을 바쳐야 할것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

도록 하여야 합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의 세기적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입니다. 우리는 해방직후 수령님의 애국의 호소를 받들고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운 세대들처럼, 전후 재더미로 된 빈터우에 맨손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운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처럼 선군시대의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워야 합니다.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있는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 조국통일은 곧 애국이고 조국분렬은 곧 매국입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들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합니다.

애국은 보석과 같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보석

이 땅속에 묻혀있어도 빛을 잃지 않는것처럼 애국의 마음은 그것이 비록 크지 않아도 귀중한것이며 언제나 아름다운것입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추어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나무 한그루를 심어도 거기에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담게 되고 건설장에서 흠한삽을 떠도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게 될것입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따라배우고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합니다.

지금 당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실지 당사업이 인민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깃들어있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으로, 인민들의 애국적열의에 의거하는 사업으로 되지 못하고있습니다. 당사업이나 근로단체사업이 사람과의 사업이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그것은 마땅히 사람들의 애국심을 키우고 발양시키는 사업으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발현되는 애국적소행들을 귀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해주며 온 사회에 애국의 열풍을 일으켜 너도나도 애국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가기관들과 사회조직들이 다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에 대한 교양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특히 교육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교육사업이 **김정일**애국주의 교양으로 지향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교양을 가정교양, 사회교양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는데서 일꾼들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들은 앉아서 나라일을 걱정이나 하는 우

국지사가 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여 조국을 받드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이 제시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는 오늘 우리 일군들이 들고나가야 할 애국의 구호입니다. 일군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구보다 애국의 열정으로 불타야 하며 언제나 애국투쟁의 선봉에 서서 인민들과 함께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이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과 함께 등짐도 지고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성실히 일하면 인민들이 다 애국의 한마음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떨쳐나설것입니다.

내가 얼마전에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노동당만세를 부를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 말에는 군중대회 같은데서만이 아니라 홀로 외진 섬이나 깊은 산골에 들어가있을 때에도 스스로 노동당만세를 부르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있습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일군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며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면 그들이 언제 어

디서나 심장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로동당만세를 부르게 될것입니다.

우리 당은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양양된 애국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직후에 힘있는 사람은 힘을,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자는 력사적인 개선연설로 애국의 불길을 일으켜 새 조국건설의 앞길을 열어나가신것처럼 그리고 장군님께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모두 한마음한뜻으로 힘차게 일해나가자는 친필서한으로 애국의 불길을 일으켜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길을 열어나가신것처럼 오늘 우리 당은 **김정일**애국주의를 불씨로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입니다.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열풍이 일고 전체

인민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실천활동에 철저히 구현
해 나갈 때 우리 조국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
성국가로 높이 솟아오르게 될것입니다.